KOSDAQ SMALL-CAP RESEARCH

이노메트리 302430 · 2차전지 검사장비

혼재

배터리(2차전지)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불량이 있는지 X-ray·CT로 들여다보는 검사장비를 만들어 삼성SDI 등 배터리 회사에 파는 회사.

2026년 11월 12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순위 6위(58.7억), 미보도 후보 955개 중 선정. 당일 +23.1% 급등하며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12.4배로 폭증. 최근 두 달간 북미 ESS용 배터리 검사장비 수주·유리기판/HBM 신사업 뉴스가 집중됐고 8월 자기주식취득신탁 해지·9월 공급계약 정정 공시가 이어짐.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615억	6,280원	+23.14%	59억	적자	1.09배	36.75%	93.14%

쉬운 요약

이노메트리는 **배터리 속 눈에 안 보이는 불량을 X-ray·CT로 찾아내는 검사장비**를 만드는 국내 1위 회사입니다. 삼성SDI 같은 배터리 회사가 주 고객입니다.
2023년 매출 838억·영업이익 82억으로 좋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2024~2025년 매출이 386억까지 줄고 2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북미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검사 수요**가 살아나며 1분기 매출이 175억으로 튀어 올랐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유리기판·HBM 반도체 검사라는 새 영역으로 넓히는 중입니다.
다만 2분기에 다시 영업손실 22억이 나면서 회복이 아직 한 방향은 아닙니다. 11월 12일 주가는 +23%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평소의 12배로 터진 **테마성 급등** 성격이 강합니다. PBR 1.09배로 자산 대비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투자 포인트

1. 배터리 검사장비 국내 1위 — 삼성SDI 미국 ESS용 CT 검사장비를 '싹쓸이' 수주하며 2026년 1분기 매출 175억(전분기 97억 대비 급증)으로 회복 신호
2.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인라인 CT 전수검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라인에 적용, 신규 폼팩터 전환이 곧 장비 교체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
3. 유리기판(TGV)·HBM 반도체 검사로 사업 영역 확장 — YPT 등 신규 고객 TGV 검사장비 수주, 영국 UCL과 미세크랙 검출 기술 공동개발

핵심 리스크

1. 2024~2025년 2년 연속 영업적자(-72억, -57억), 매출도 838억→386억으로 반토막. 2026년 2분기 영업손실 -22억으로 다시 적자 전환해 턴어라운드가 아직 분기 단위로 왔다갔다
2. 당일 +23.1% 급등에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12.4배 — 전형적 테마 수급 과열. 52주 최고 11,540원 대비 -45.6%로, 5월 고점 붕괴 이력이 있음
3. 당좌비율이 298%(25.2Q)에서 93%(26.2Q)로 급락 — 1년 만에 단기 지급능력이 3분의 1 토막, 현금 소진 속도가 빠름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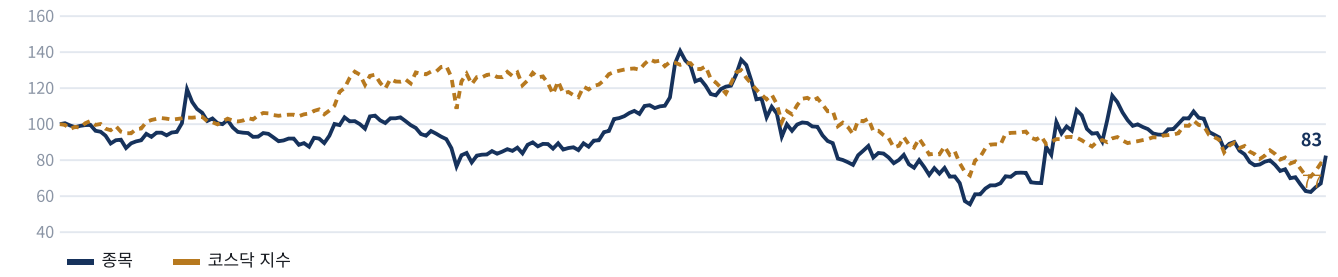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5,060원	+24.1%	+2.7%	+21.4%
1개월 전	7,170원	-12.4%	-16.8%	+4.4%
3개월 전	5,560원	+12.9%	-	-
1년 전	7,570원	-17.0%	-23.2%	+6.1%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944,393주	58.7억	5.5x
5일 평균	212,424주	13.0억	1.2x
20일 평균	75,951주	4.6억	0.4x
60일 평균	367,953주	28.4억	2.1x
1년 평균	172,628주	13.7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2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 성적은 마이너스지만 바닥에서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1년 전 7,570원에서 현재 6,280원으로 -17.0%, 그 사이 52주 최고 11,540원(5/8)을 찍고 52주 최저 4,030원(7/30)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45.6%, 저점 대비

+55.8%. 즉 이 종목의 1년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봄 급등 → 여름 붕괴 → 가을 반등**의 궤적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같은 1년 -23.2%인 것과 비교하면 지수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② **11월 12일의 거래량은 '매매'의 크기입니다.** 당일 거래량 94만여 주는 20일 평균(7.6만 주)의 12.4배, 당일 거래대금 58.7억은 20일 평균(4.6억)의 약 13배입니다. 평소 거래가 말라 있던 종목에 하루 만에 자금이 몰렸다는 뜻으로,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6일에 달합니다. 이런 폭증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더가 주도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③ **외국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1개월 전 1.11%에서 현재 1.66%로 소폭 늘었을 뿐, 애초에 2% 미만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이 반등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승의 주체는 사실상 개인 자금입니다. 1년 전 1.4%와 비교해도 외국인 관심은 구조적으로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④ **최근 1개월은 지수보다 선방했습니다.** 1개월 수익률 -12.4%로 숫자만 보면 빠졌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16.8%라 상대적으로는 4%p 이상 강했습니다. 1주 기준으로는 +24.1%로 지수(+2.7%)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이 단기 강세의 재료는 10월 하순 집중된 유리기판·HBM 신사업 뉴스와 키움증권 리포트(Not Rated)이며, 개별 실적 확정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신사업 기대'와 '단기 수급'이 함께 만든 것이며, 5월 고점 붕괴가 그 변동성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배터리) 안쪽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량을 X-ray와 CT(컴퓨터단층촬영)로 찾아내는 **검사장비 전문기업**입니다. 배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부 전극 정렬 불량·이물질이 있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수검사 장비는 배터리 양산라인의 필수품입니다. 국내 배터리 검사장비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핵심 고객은 삼성SDI이며, 2026년 들어 북미 ESS(에너지저장장치)용 수요 회복과 유리기판·HBM 반도체 검사로의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배터리 X-ray·CT 검사장비	각형·파우치·원통형 배터리의 전극 정렬·이물질을 비파괴로 검사. 46파이 원통형 인라인 CT 전수검사를 세계 최초 양산 적용. 매출의 주력축으로 추정.
ESS용 배터리 검사장비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전환에 맞춘 배터리 CT·이물검사 장비. 삼성SDI 미국 ESS용 물량 '싹쓸이' 수주, 8월 미국향 49억원 공급계약 보도.
유리기판(TGV)·HBM 반도체 검사	반도체 유리기판의 미세홀(TGV)과 미세크랙, HBM(고대역폭메모리) 검사로 영역 확장. YPT 등 신규 고객 수주, 영국 UCL과 기술 공동개발.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반기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배터리 검사가 주력이며 유리기판·HBM은 아직 매출 기여 초기 단계로 추정.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삼성SDI를 비롯한 배터리 셀 제조사**로, 이들의 신규 양산라인 투자(CAPEX)가 곧 이노메트리의 수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수주 회복의 핵심 동력은 북미 ESS용 배터리 라인 신설이며, 디일렉·파이낸셜포스트 보도상 미국향 ESS 검사장비를 연이어 수주 중입니다(공급계약 금액·고객사는 DART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본문에서 확인 필요). 2차 고객군은 **유리기판·반도체 패키징 기업(YPT 등)**으로, 신사업 개척 단계입니다.

경쟁 구도

배터리 검사장비 시장에서 이노메트리는 X-ray·CT 비파괴검사 분야 선두로 평가되며, 경쟁자로는 2차전지 비전·검사 솔루션을 다루는 **이오테크닉스, 피엔티, 자비스(X-ray 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이노메트리의 강점은 '인라인 CT 전수검사'라는 고난도 기술과 삼성SDI 레퍼런스이고, 약점은 소수 대형 고객 의존과 배터리 투자 사이클에 매출이 크게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유리기판·HBM 검사 영역에서는 반도체 검사 대기업·전문업체와 새로 경쟁해야 해 레퍼런스 확보가 관건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2차전지 검사장비 — 배터리 양산라인부터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배터리 검사장비는 위로는 자신의 광학·X-ray 부품 공급사에, 아래로는 배터리 셀 제조사의 라인 투자 예산에 끼어 있습니다. 이노메트리는 이 사슬의 **검사장비 제조(중간)**에 위치하며, 고객인 배터리 제조사의 투자 사이클과 폼팩터(배터리 형태) 변화에 매출이 직접 좌우됩니다. 최근에는 아래쪽 수요를 배터리에서 반도체 유리기판·HBM으로 넓히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① 부품·소재	›	② 검사장비 제조	›	③ 배터리·반도체 제조	›	④ 최종 수요
X-ray 튜브·디텍터, 광학·비전 모듈, 정밀 구동부 — 해외·국내 부품사		이노메트리, 자비스, 이오테크닉스, 피엔티 (검사·비전 솔루션)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 유리기판·HBM: YPT 등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AI 데이터센터(HBM·유리기판 패키징)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매출은 '소비'가 아니라 '라인 투자'다.** 배터리 제조사가 새 양산라인을 깔 때 검사장비를 산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 라인 투자가 멈추고 매출이 급감한다. 2024~2025년 매출이 838억에서 386억으로 반토막 난 것이 그 증거다.
2. **폼팩터 변화가 곧 교체 수요다.** 46파이 원통형, ESS용 대형 셀처럼 배터리 형태가 바뀌면 기존 검사장비로 안 되고 새 장비가 필요하다. '배터리 바뀌면 따라 바뀌는 것'이 검사장비라는 보도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준다.
3. **북미 ESS가 2026년 반등의 방아쇠다.** 전기차는 주춤해도 AI·데이터센터 전력용 ESS 수요가 커지며 미국에 배터리 라인이 신설되고 있다. 삼성SDI 미국 ESS용 검사장비 수주가 1분기 매출 급증(175억)의 배경이다.
4. **유리기판·HBM은 '새 고객'이자 '새 리스크'다.**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는 배터리와 다른 기술·고객이라 성공하면 성장축이 되지만, 레퍼런스가 쌓이기 전까지는 기대일 뿐이다. 현재 공시로 확인된 매출 기여는 제한적이다.
5. **소수 대형 고객 의존이 양날의 칼이다.** 삼성SDI 같은 대형 고객의 투자가 집중되면 분기 매출이 튀지만(26.1Q 175억), 그 고객이 쉬면 다음 분기가 바로 꺾인다(26.2Q 146억·적자). 매출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크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배터리 제조사 라인 투자 (CAPEX)	+	매우 높음	매출 대부분이 셀 제조사 신규 라인 발주에서 나옴. 삼성SDI 투자 시점이 분기 매출을 좌우
북미 ESS 시장 성장	+	높음	2026년 수주 회복의 핵심 동력. ESS용 검사장비 신규 수요처이나 실제 공급계약 금액 확인 필요
전기차 수요 둔화	−	높음	2024~2025년 매출 반토막의 직접 원인. EV 라인 투자 지연이 다시 오면 매출 재감소
유리기판·HBM 신사업	+	중간(기대)	성공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나 아직 수주 초기. 매출 기여 확인 전까지는 기대 영역
폼팩터 전환(46파이 등)	+	중간	신규 배터리 형태가 장비 교체 수요를 만듦. 세계 최초 인라인 CT 적용 레퍼런스 확보
단기 테마 수급·거래량	±	매우 높음(주가)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의 12.4배.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환율·수출 비중	±	낮음	북미향 수출 확대 시 원/달러 상승은 유리. 다만 비중·영향은 사업보고서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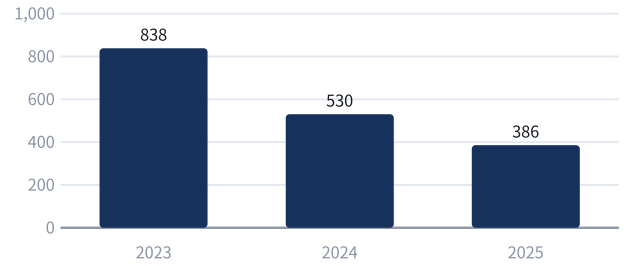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838	82	78
2024	530	-72	-15
2025	386	-5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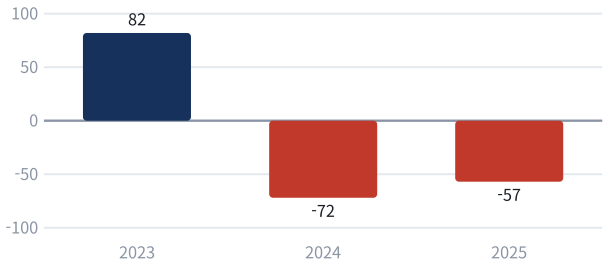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2Q	106	10	6
25.3Q	95	-3	5
25.4Q	97	-42	-35
26.1Q	175	2	13
26.2Q	146	-22	-22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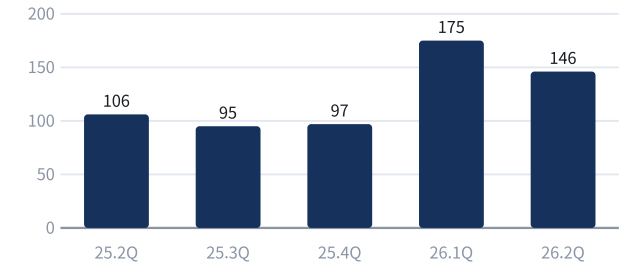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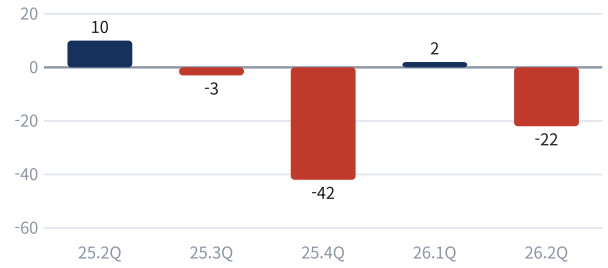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은 전기차 사이클과 함께 무너졌다 돌아서는 중입니다. 838억(2023) → 530억(2024) → 386억(2025). 2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이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제조사들이 라인 투자를 멈춘 결과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률 9.8%의 알짜 회사가 2024년 -13.6%, 2025년 -14.8%로 적자에 빠진 것은, 장비 회사 특유의 **높은 고정비(인건비·연구개발비)가 매출 급감을 그대로 손실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분기 흐름을 보면 회복과 재적자가 엇갈립니다. 25.4Q는 매출 97억에 영업손실 -42억·순손실 -35억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26.1Q 매출이 175억으로 튀어 오르며 영업이익 2억·순이익 13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북미 ESS 수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26.2Q에 매출 146억으로 줄고 다시 영업손실 -22억·순손실 -22억이 났다는 점입니다. **한 분기 좋고 한 분기 나쁜 흐름**이라, 아직 '추세적 턴어라운드'라 부르기엔 이릅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부호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26.1Q는 영업·순이익 모두 흑자, 26.2Q는 모두 적자로, 영업 밖에서 크게 터진 이상 신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25.3Q는 영업손실(-3억)인데 순이익(+5억)으로, 영업외 이익이 손익을 뒤집은 분기가 있어 영업외 항목의 변동성은 반기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나 방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9.7%(25.2Q)에서 36.75%(26.2Q)로 상승했고, 무엇보다 **당좌비율이 298%에서 93%로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며 보유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보율은 여전히 1,076%로 높아 PBR 1.09배라는 수준을 지탱하지만, 그 자본이 계속 손실로 깎이고 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북미 ESS 수주로 1분기 매출 175억·흑자 전환

2026년 1분기 매출이 175억으로 직전 분기(97억)의 1.8배로 뛰며 영업이익 2억·순이익 13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차 둔화를 북미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검사 수요가 메워준 결과로 추정됩니다. 삼성SDI 미국 ESS용 검사장비를 '싹쓸이' 수주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 / 디일렉 2026.09.01 / 파이낸셜포스트 2026.09.04

46파이 인라인 CT 전수검사 세계 최초 양산 적용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라인에 인라인 CT 전수검사·이물검사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첫 장비를 출하했습니다. 배터리 폼팩터가 바뀌면 검사장비도 새로 필요한 구조라, 신규 폼팩터 선점은 곧 교체 수요 선점입니다. 추가 수주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 2026.08.20 / 뉴스핌·데일리경제 2026.08.21

유리기판(TGV)·HBM 반도체로 사업 영역 확장

배터리를 넘어 반도체 유리기판 미세홀(TGV)과 HBM 검사로 확장 중입니다. YPT 등 신규 고객에 TGV 검사장비를 공급하고, 영국 UCL과 유리기판 미세크랙 검출 기술을 공동개발합니다. 성공 시 배터리 사이클 의존을 줄이는 두 번째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디넷코리아 2026.10.26 / 디일렉 2026.06.24 / 디일렉 2026.07.21

자사주 3만주 소각 — 주주가치 제고

2026년 8월 자사주 3만주(약 2.7억원 규모)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주주환원 조치입니다. 8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해지(주요사항보고서)와 함께, 자사주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TV·지디넷코리아 2026.08.13 / DART 2026.08.13

증권사 리포트·수주 모멘텀 부각

키움증권이 '2027년 실적 회복과 신사업 성장 본격화'를 담은 리포트(Not Rated)를 냈고, 글로벌 셀 제조사들의 X-ray 검사장비 수주 문의가 이어진다는 보도가 집중됐습니다. R&D·기술영업 인력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수주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 키움증권/뉴스핌 2026.10.20 / 핀포인트뉴스 2026.09.08 / 뉴스핌 2026.08.25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2분기 다시 영업손실 -22억 — 분기마다 흑적 오락가락

1분기 영업이익 2억 흑자였다가 2분기에 매출이 146억으로 줄며 영업손실 -22억·순손실 -22억으로 재전환했습니다. 분기별로 흑자와 적자가 번갈아 나오는 상태라, 아직 안정적 턴어라운드로 보기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이어져야 추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

2년 연속 영업적자, 매출 2년 만에 반토막

매출 838억(2023)→530억(2024)→386억(2025)으로 2년간 반토막, 영업이익도 82억 흑자에서 -72억, -57억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객사 라인 투자가 멈춘 결과이며, EV 사이클이 다시 꺾이면 매출이 재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DART 연간재무 2023~2025

당일 +23.1% 급등, 거래량 20일 평균의 12.4배 — 과열

11월 12일 주가가 +23.1% 급등하며 당일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12.4배, 거래대금은 20일 평균의 약 13배로 폭증했습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변동일이 6일로, 전형적 단기 테마 수급 과열입니다. 이런 급등은 재료 소멸 시 같은 속도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52주 최고 11,540원 대비 -45.6% — 고점 붕괴 이력

올해 5월 8일 11,54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7월 30일 4,0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저점 대비 현재 +55.8%). 봄 급등 후 여름 붕괴의 변동성이 이미 한 번 현실화됐으며, 현재의 반등도 신사업 기대에 기댄 수급성 성격이 강합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05~11

당좌비율 298%→93%로 급락 — 현금 소진 가속

25.2Q 298%였던 당좌비율이 26.2Q 93%로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100% 미만). 적자가 이어지며 단기 지급능력을 떠받치던 현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채비율도 19.7%에서 36.75%로 올랐습니다. 아직 절대 수준은 양호하나 방향이 나쁩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

공급계약 '기재정정' 반복 — 내용 변동 점검 필요

2026년 2월·6월·7월·9월에 걸쳐 단일판매·공급계약 '기재정정' 공시가 반복됐습니다(9월에만 3건). 정정은 계약금액·납기·고객 등 조건 변경일 수 있어, 원래 공시 대비 무엇이 바뀌었는지 각 정정 공시 본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DART 2026.09.29·09.28·09.04 외

신사업(유리기판·HBM) 매출 기여는 아직 기대 단계

유리기판·HBM 검사는 뉴스 모멘텀의 핵심이지만, 공시로 확인된 매출 기여는 아직 초기입니다. YPT 등 수주가 있으나 금액·비중이 재무에 뚜렷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7년 성장 본격화'라는 전망은 아직 실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키움증권/뉴스핌 2026.10.20 / DART 분기재무 2026

소수 대형 고객(삼성SDI) 의존 구조

매출이 삼성SDI 등 소수 대형 고객의 라인 투자에 집중돼 있어, 해당 고객이 투자를 쉬면 분기 매출이 바로 꺾입니다. 26.1Q 175억에서 26.2Q 146억으로 한 분기 만에 줄어든 것이 이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고객·지역 다변화가 과제입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 / 디일렉 2026.09.01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09.29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9.28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9.04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8.27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8.14	반기보고서 (2026.06)	이노메트리
2026.08.1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이노메트리
2026.07.30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7.09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6.12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6.10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6.01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2026.05.14	분기보고서 (2026.03)	이노메트리
2026.04.1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이노메트리
2026.03.20	사업보고서 (2025.12)	이노메트리
2026.03.20	감사보고서제출	이노메트리
2026.02.24	[기재정정] 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이노메트리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자사주로 주주환원 → 공급계약 체결·정정 반복 → 신탁 해지'**의 흐름입니다. 4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체결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8월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주요사항보고서)하면서 동시에 자사주 3만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마무리하며 주주가치 제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힙니다. 2월부터 9월까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과 정정 공시가 이어졌는데, 특히 6~9월에 집중된 것은 북미 ESS 수주 활기와 시점이 맞물립니다. 다만 **정정 공시가 반복된다는 점은 계약 조건이 수시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각 공급계약의 '정정 전후 비교' 본문과 계약금액·납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상증자

·CB 등 자금조달 공시는 주요 13건 안에 보이지 않아, 재무구조 악화는 아직 영업적자에 따른 현금 소진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3분기·4분기에도 영업흑자가 이어지며 북미 ESS 수주가 연간 매출을 500억대로 복귀시키고, 유리기판(TGV)·HBM 검사장비에서 첫 대형 공급계약이 공시로 확인된다. 2027년 실적 회복 전망이 수치로 입증되면 PBR 1.09배는 성장주 프리미엄으로 재평가될 근거를 갖는다. **조건: ESS 흑자 지속 + 신사업 수주 공시 확인.**

기본 시나리오

배터리 라인 투자 사이클에 따라 분기 실적이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 ESS 수주가 매출을 떠받치지만 2분기처럼 고객 투자 공백기에는 적자가 재발. 유리기판·HBM은 2027년 이후 본격화. 주가는 신사업 뉴스와 단기 수급에 따라 5,000~8,000원대에서 크게 출렁인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전기차·ESS 투자가 동시에 지연되고 3분기도 적자가 이어지며, 당좌비율이 100% 아래에서 더 떨어져 현금 압박이 커진다. 신사업 수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테마 자금이 이탈하면, 거래량이 평소 수준(20일 평균 7.6만 주)으로 말라붙으며 7월 저점(4,030원) 재시험 가능성. **5~7월에 한 번 실제로 일어난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3분기(26.3Q) 영업이익 흑자 지속 여부 — 11월 중순 분기보고서. 1분기 흑자·2분기 적자 뒤라 방향 확인에 결정적
2. 반복된 공급계약 '기재정정' 공시 본문에서 계약금액·납기·고객 변동 내용 확인 (DART 각 정정 공시)
3. 유리기판(TGV)·HBM 검사장비의 실제 매출 반영 여부 — 분기보고서 사업부문별 매출과 신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4. 당좌비율 100% 회복 여부와 현금성자산 추이 — 반기·분기보고서 재무상태표
5. 북미 ESS 시장 투자 동향과 삼성SDI 미국 라인 증설 뉴스 — 고객사 CAPEX가 선행 지표
6. 25.3Q처럼 영업외 항목이 손익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 반기보고서 주석의 금융손익·기타손익 변동 확인

오픈팩트의 결론

배터리 검사장비 1위라는 기술 경쟁력과 북미 ESS·유리기판·HBM이라는 성장 스토리를 함께 가진,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 흑자 전환과 46파이·TGV 수주가 그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2분기에 다시 영업손실 -22억이 났고, 당좌비율이 1년 만에 298%에서 93%로 떨어진 점**은 '회복'이 아직 분기 단위로 왔다갔다 하는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월 12일 +23% 급등은 실적 확정이 아니라 신사업 기대와 단기 수급이 만든 가격이며, **5월 11,540원에서 7월 4,030원으로 무너진 경험이 그 변동성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3분기 흑자 지속과 신사업 수주의 공시 확인이 다음 분기점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